



자유주의 정보 19-21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rt Carden,

What Does Bussing Your Own Restaurant Table Show about Minimum Wages?

27 January, 2019

손님이 식사후 뒷자리를 직접 정리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에 주는 시사점은?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이, 장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까? 무조건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 난 보스턴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치면 당신이 사용한 접시와 수저들을 가져다 주세요"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다. 그들은 테이블을 치워줄 직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야 한다.

물론 너무 예의가 바른 나머지 자신이 먹은 음식을 청소할 수는 있겠으나, 내가 궁금한 것은 접시를 치워주던 점원들이 모두 어디로 갔는지도. 간단하다. 그들은 더 이상 노동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없는 것이다. 시간당 8\$를 주고 점원으로 고용할 수는 있지만, 시간당 11\$를 지불해야 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메사추세츠 주를 예로 들면, 5년 이내에 최저임금이 15\$까지 상승할 예정이고, 우리는 점점 더 적은 점원들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반문할 수도 있겠다. "어차피 그런 직업은 잠시 하는 일이고, 돈도 많이 못 벌지 않는가?" 그러나 간과해선 안될 사실이 있다. 아예 직업이 없는 것보다는 저임금의 직업이라도 있는 게 낫다는 것이다.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올라서 돈을 조금 더 번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면서 생기는 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승리도 '상처뿐인' 승리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피라미드의 밑이 무너져 내려가는데 위로 올라갔다고 해서 뿌듯해할 것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다음에 만약 당신이 저임금 노동자가 뻑뻑한 업무 스케줄에 묶여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시급 8\$의 여유로운 업무가 사회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음식점에 방문했을 때, 적당한 가격과 적절한 서빙을 원하는 고객들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증가하면서 적당한 가격도, 적절한 서빙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최저임금이 오른 여파로 음식점의 메뉴 가격은 오르고, 서빙을 하던 직원들은 해고 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오른 것이 별다른 체감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올라 오늘 또 다른 일용직 노동자들의 직장 하나가 사라졌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www.independent.org/news/article.asp?id=11676>